

‘문제영역(Issue-Area)’을 통해 본 탈냉전기 中-美관계 연구

朴 鴻 緒*

目 次

- | | |
|-------------------|--------------------|
| I. 서론 | 3. 가치 영역 |
| II. 중미간 문제영역의 형성 | 4. 대만문제 영역 |
| 1. 문제영역의 개념 | IV. 중미간 문제영역의 평가 |
| 2. 중미간 문제영역의 결정요인 | 1. 문제영역간 ‘대체성’의 감소 |
| III. 중미간 문제영역의 전개 | 2. 협력과 갈등 영역의 분리 |
| 1. 경제 영역 | V. 결론 |
| 2. 군사/안보 영역 | |

I. 서론

1949년 중국공산정권 수립이후 탈냉전시기까지 중미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¹⁾ 중국과 미국은 1950년-60년대에 있어 비협력적·대결적 관계를 유지한 반면, 1972년 상해공동성명을 기반으로 관계개선을 도모하였고, 결국 1979년

*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亞洲地域研究學科 碩士

1) 이러한 변화는 국제체제와 중미양국의 외교정책이 상호 조율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신현실주의 이론가인 왈츠(K. Waltz)는 분석수준에 있어 ‘체제(system)’ 수준의 국제정치이론과 ‘단위(unit)’ 수준의 외교정책이론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전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국제정치현상에 대한 체제이론의 설명력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영역(issue-area)’에 따른 외교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ch. 4 ; Robert O. Keohane, “Theory of World Politics : Structural Realism and Beyond,” in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ch. 7.

관계정상화를 달성하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미 양국은 1980년대 초반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으나, 경제부문에 있어서의 심화된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초래된 탈냉전기 신국제질서 속에서 중미관계는 이전과는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즉, 냉전기 중미 양국이 상호간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對蘇전략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면, 對蘇전략적 유대관계가 소멸한 탈냉전기에서는 군사/안보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가치, 대만문제 등에서 협력과 갈등관계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이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탈냉전기 중미관계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탈냉전기 중미관계를 고찰하는데 있어 ‘협력과 갈등의 공존’이라는 서술적 차원에서 벗어나 “왜 협력과 갈등의 공존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²⁾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문제영역(issue-area)’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며, 諸문제영역에서 나타나는 양국간 구체적인 상호관계의 설명에 있어 ‘합목적적(rational)’인 행위자로서의 중미 양국을 가정하는 게임이론을 그 하부이론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II. 중미간 문제영역의 형성

1. 문제영역의 개념

로즈노(James N. Rosenau)에 의하면, 문제영역이란 (1) 하나의 가치 묶음으로 (2) 행위자들로 하여금 각 가치들의 배분과정에 있어 매우 상이하게 행동

2) 과학의 핵심적 목표는 분석대상현상의 인과적 생성경로를 밝히는 ‘설명’에 있다. 김용진, 『정치학 방법론 서설』(서울: 명지사, 1992), pp. 13-19; 이러한 의미에서 탈냉전기 중미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중미관계를 체계적·객관적으로 表寫하는 ‘서술’의 차원에 안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 Harding,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가 있다.

하게 하고 (3)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지세력을 동원하는 등 ‘특징적인(distinctive)’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³⁾

로즈노는 <그림 II-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實際性(tangibility)’의 개념을 기반으로 행위자의 수단과 목적을 각각 ‘非實際的(intangible)’인 것과 ‘實際的(tangible)’인 것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문제영역을 ‘지위 영역’, ‘인적자원 영역’, ‘영토 영역’, ‘비인적자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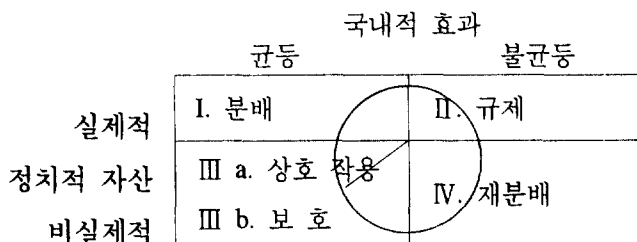
<그림 II-1> 로즈노의 문제영역

		수 단	
		비실제적	실제적
목적	비실제적	지위영역	인적자원 영역
	실제적	영토영역	비인적 자원영역

출처 : James N. Rosenau,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ew York : The Free Press, 1971), p. 145.

한편, 짐머만(W. Zimmerman)은 울퍼(A. Wolfers)와 로위(T J. Lowi)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제영역에 기반을 둔 외교정책을 <그림 II-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II-2> 짐머만의 문제영역



출처 : William Zimmerman, "Issue-Area and Foreign-Policy Process : A

3) James N. Rosenau,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ew York : The Free Press, 1971), p. 141.

Research Note in Search of a General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7, 1973. p. 1208.

[I. 분배영역]에서는 각각의 지원세력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의 비분쟁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며, [II. 규제영역]에서는 국내 정치적 효과가 불균등한 실질적인 문제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참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개별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III. 상호작용/보호영역]은 '위기상황'이나 평상적인 국가간 관계와 같이 일반대중의 관심이 일치되거나 무관심하게 되는 영역으로서 최고정책결정자의 역할이 증대된다. 마지막으로 [IV. 재분배영역]에서는 분열된 엘리트들의 계급투쟁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이 나타난다.

한편, 케이오헨(Robert O. Keohane)과 나이(Joseph S. Nye)는 비록 각 문제 영역의 명확한 구분에는 낙관적인 입장을 갖지 못하였지만, 군사력 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국제체제 속에서 국가간 관계는 문제영역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⁴⁾

이와 같이 다양한 개념의 문제영역에 대해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분석은 각 문제영역의 상호간 '대체가능성(fungibility)'을 둘러싸고 이견을 나타낸다. 전통적인 현실주의 분석은 한 문제영역에서 지배적인 국가들은 그 영역의 힘을 사용해서 다른 문제영역들의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간주함으로써 대체가능성을 높게 파악한다. 반면, 신자유주의 이론은 문제영역간 대체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간주한다. 예를 들어, 군사적 강대국이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경제적 강대국이 군사/안보 영역 및 이념 영역에 있어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각 문제영역의 개별적인 '권력자원(power resources)'을 기반으로 자국의 국가이익을 증가시키게 된다.⁵⁾

4) 이와 같이 문제영역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각 연구자에 따른 문제영역의 분류는 경험적으로 검증되기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William C. Potter, "Issue-Area and Foreign Policy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80, pp. 406-27 참조

2. 중미간 문제영역의 결정 요인⁶⁾

1) 개인차원

중국의외교정책결정에 있어 '개인(elite)' 차원의 변인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⁷⁾ 중국지도부의 對美인식은 크게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론' 및 군부 및 보수 원로들이 중심이 되는 '반대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前者는 미국과 '이견이 존재하는 부문은 잠시 보류하는 대신, 공통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문에서는 협력적인 정책을 추구(求同存異)' 하고 있으며, 後者는 미국을 자국의 공산정권 및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국가로 인식하면서, 미국의 對중국, 對대만 및 인권정책 등을 중국을 압제하려는 패권국가의 야욕이라고 간주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⁸⁾

- 5)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Realism and Complex Interdependence," in Paul R. Viotti and Mark V. Kauppi,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York : Macmillan, 1987), pp. 390-91 ; 정치학에서는 경제학의 '금전'에 비교할 만큼 정치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 문제영역간 상호대체성이 비교적 작다고 볼 수 있다. David A. Baldwin, "Neoliberalism, Neorealism, and World Politics," in Baldwin,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 The Contemporary Debate* (New York : Columbia Unibversity Press, 1993), pp. 20-22.
- 6) 국가간 문제영역이 관련국가가 수행하는 외교정책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면, 외교정책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영역의 형성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로즈노(J N. Rosenau)는 '국가형태'에 따라 외교정책 결정요인의 우선순위가 변화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크기(大小), 경제발전단계(선진/후진), 정치체제(개방/폐쇄)에 따라 총 8개의 국가형태를 제시하고 각각의 국가형태 안에서 외교정책 결정요인으로서 '역할차원', '체제차원', '개인차원', '사회차원', '정부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James N. Rosenau,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p. 113 ; 본고에서는 역할차원을 생략하고 4가지 차원으로 중미 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한다.
- 7) Bin Yu, "The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 Ploblems and Prospect," *World Politics*, January 1994, p. 256 ; David Shambaugh, "Containment or Engagement of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Fall 1996, p. 196 ; Shaun reslin, "The Foreign Policy Bureaucracy," in Gerald Segal, ed., *Chines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Reform* (London : Kegan Paul International, 1990), p. 119 참조
- 8)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건과 1995년 대만 이등휘 총통의 미국방문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중국 권력엘리트들의 대미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David Shambaug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A New Cold War?" *Current History*,

한편,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선교사(missionary)' 적인 인식과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즉,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선교사적인 입장에서 중국을 교화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대중국정책에 있어 세력균형을 강조하면서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최고의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⁹⁾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양분적인 대중국 인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중국정책에 있어서도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부 및 대다수 중국 전문가들이 주류를 이루는 '참여(engagement)'론자들은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봉쇄(containment)'론자들은 중국위협론을 제기하면서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¹⁰⁾

2) 정부 차원

중국의 외교정책결정에 있어 비록 최고 지도층의 시각은 여전히 대외정책에 대한 선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나, '國務院(State Council)'과 그 하부조직인 외교부, 전문 연구기관의 역할이 '하위정치(low politics)'부문에 있어서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군(人民解放軍)'은 대미외교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독자적으로 미국과 군사부문에 있어 교류를 한다거나 제 3국에 대한 무기판매 등에 관여함으로써, 중미관계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¹¹⁾

미국의 정치구조상 의회와 행정부간의 역학관계는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결정과정에도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외적 권한의 분배에 관하여 헌법상의 규정이 매우 불비되어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나

September 1995, pp. 244-45.

9) Robert B. Zoellick, "China : What Engagement Should Mean," *The National Interest*, Winter 1996/97, pp. 13-22 참조.

10) David Shambaugh, "The United States & China : A New Cold War?" pp. 243-44.

11) Michael B. Yahuda, "Sino-American Relations," in Gerald Segal, ed., *Chines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Reform* (London :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0), p. 191 ; 한편, 덩소평 사후 권력승계에 있는 중국의 대미 외교정책 결정과정에도 있어 군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June Teufel Dreyer, "The Military's Uncertain Politics," *Current History*, September 1996, pp. 254-59 참조.

타난 규정 및 실제 관행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회와 행정부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경쟁’은 더욱 촉진되고 있다.¹²⁾

이러한 행정부와 의회간의 알력은 대중국 정책에서도 뚜렷하게 투영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최혜국 대우 연장 문제 및 대만 이등회 총통의 미국 방문 등을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¹³⁾

3) 사회 차원

중국의 대미정책 결정요인으로서 사회차원의 변인은 대중들의 대미인식수준 등과 같은 비실제적인 부문과 중앙-지방관계 및 대미 인적교류와 같은 실제적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미 인식에 있어 중국의 대중들은 미국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대다수 젊은세대들은 선망의 대상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다.¹⁴⁾ 둘째, 중앙-지방간 분권화가 심화되면서 타국과의 무역 및 경제관계에 있어 각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해안 경제특구와 같은 부유한 지방정부는 미국의 경제단위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상당수 중국학생들의 미국 유학과 학자들의 빈번한 미국방문 등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미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 차원의 변인이 되고 있다.¹⁵⁾

미국의 대중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사회부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일반대중의 대중국 인식은 천안문 사건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

12) 표학길 外, 『미국의 대외관계』(서울: 서울대 출판부, 1990), pp. 4-5.

13) 다수의 중국 문헌에서도 미국의 행정부, 의회간 역학구도에 따른 대중국 정책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張也白, 「中美關係: 曲曲折折在低谷中徘徊」, 張西明 外, 『1995-6年中國發展狀況與趨勢』(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p. 368; 潘銳, 「美國對華政策面臨調整」, 『國際展望』, 1996年 第 15期, pp. 9-11 참조.

14) 그러나 중국내에서 사회주의가 퇴조하고, ‘민족주의’ 이념이 급속도로 부상하는 상황과 결부되면서 대미인식은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민족주의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내부적인 단결을 도모한다는 분석이 있다. 李福鍾, 「民族主義與美國對中共外交政策的重新檢討」, 『中國大陸研究』, 第 39卷 第 6期(1996年 6月), pp.45-46; Kenneth Lieberthal, “A New China Strateg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1995, p. 40;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9, 1995, pp. 20-28 참조.

15) Michael B. Yahuda, “Sino-American Relations,” pp. 190-91.

작하였고, 관련이익단체들은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활발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 대한 미국내 이익단체의 성격은 크게 '수용적'인 단체와 '요구적'인 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갱신문제를 둘러싸고 주로 경제문제와 관련된 단체들은 대중국 최혜국 대우의 철회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외 경제이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혜국 대우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수용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미국내 인권단체들은 중국내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지적하면서 미행정부의 최혜국 대우 연장 방침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출하였던 것이다.¹⁶⁾

4) 체제요인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나타난 탈냉전체제는 중미관계의 전반적인 양상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탈냉전체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¹⁷⁾

첫째, 경제부문에 있어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일본, 유럽의 위상강화이다.¹⁸⁾ 둘째, EU 및 WTO 등에서 나타나듯 민족국가를 초월하는 '광역국가 및 레짐' 형성을 위한 노력이다. 국가들은 각종 정치, 경제, 군사 부문에 있어 협력체를 형성하면서 배타적 민족국가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셋째, 국제정치에 있어서 군사 영역의 중요성보다 경제영역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자국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대외적인 군사/안보 부문의 안정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⁹⁾

16) 예를 들어 미국의 투자가, 수출입상 및 홍콩의 미국 상공회의소, 워싱턴에 주재하는 홍콩 정부의 대표들이 주로 수용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반대로 미국내 다수의 논설위원, 국회의원, 인권운동가, 중국의 재미유학생 등은 미정부가 강경한 대중 정책을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Harry Harding, *A Fragile Relationship: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pp. 265-67.

17) 전체적인 순서는 하영선, 「탈냉대 국제정치이론」, 이상우/하영선, 『현대국제정치학』(서울: 나남, 1993), pp. 138-44를 참조.

18) 신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일반적인 시각도 미국의 쇠퇴에 따른 다극화를 지적하고 있다. 즉, 탈냉전기 국제질서는 一超(미), 三中心(미, 일, 유럽), 五大力量(미, 일, 유럽, 러시아, 중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宋國誠, 「九十年代中共的國際關係」,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12期(1996年 12月), pp. 55-67 참조.

19) 王和興, 「試析冷戰后國際關係的特點」,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 2期, pp.

이러한 신국제질서는 중미관계에 있어서도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우선, 소련의 붕괴로 중미 양국간 대소련 전략적 유대관계가 약화되면서 갈등의 개연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둘째, 중국과 미국은 국제기구 및 국제레짐을 통해서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접촉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셋째, 중국과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해서 군사/안보 영역에 있어 안정적인 환경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은 안정적인 지역환경을 확보하고, 민주주의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참여(engagement) 및 확대(enlargement) 정책을 기반으로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도 ‘포괄적 참여(comprehensive engagement)’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즉, 미국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및 군사력 증강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중국내의 인권상황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²⁰⁾

한편,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참여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의 내정문제인 인권문제, 대만문제 등에 대한 간섭을 통해 중국에 대한 봉쇄(containment)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정권을 ‘和平演變’ 하려는 ‘패권주의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²¹⁾

Ⅲ. 중미간 문제영역의 전개

1. 경제 영역

탈냉전기 중미관계에 있어 경제 영역은 매우 중요한 문제영역이다. 중국과 미국은 공통적으로 자국의 경제발전을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간주하고 있다.²²⁾

8-12 참조.

20) ‘참여정책’에 대한 논의는 백악관,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 참여와 확대」, 『국가 전략』, 세종연구소, 1995 봄/여름 ; Joseph S. Nye, Jr.,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July/August 1995 ;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 U.S. GPO, February 1995) 참조.

21) 薩本望, 「是“全面接觸”還是“全面參與”?」, 『瞭望』, 1995年 第 44期, p. 56.

따라서 경제영역에 있어서 중미 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탈냉전기 중미간 무역량은 <표 III-1>의 미국측 통계에서 나타나듯, 1989년 177. 7억 달러에서 1995년 562. 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한편, 미국의 對중국 투자실적도 1996년 142.9억 달러로 미국은 홍콩, 대만, 일본에 이어 4번째의 對중국 투자국이 되었다.²³⁾

<표 III-1> 중미간 수출입 통계

(단위 : 백만 달러)

중미간차이	중미간 수출		중미간 수입	
	중국통계	미국통계	중국통계	미국통계
1989	4,409	5,755	7,863	11,990
1990	5,179	4,806	6,588	15,237
1991	6,193	6,278	8,007	18,969
1992	8,593	7,418	8,899	25,728
1993	16,964	8,763	10,688	31,540
1994	21,461	9,287	13,970	38,781
1995	24,711	11,754	16,118	45,543

출처 : 중국측 통계 : 中國統計年鑑, 各年호.

미국측 통계 : *The National Data Book*, 各年호.

경제영역에 있어 중미간 협력구도는 아래의 <그림 III-1>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이 게임은 전형적인 '사슴사냥(Stag Hunt)' 게임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즉, 중국과 미국은 장기적인 상호의존이란 부문에서 각각 상대방에 대한 '협력'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상호 최고의 이익(4,4)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²⁴⁾

22) 『人民日報』, 1992年 8月 17日 ; 백악관,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 참여와 확대』, p. 250.

23) 國務院新聞辦公室, 『關於中美貿易平衡問題』, 『人民日報』, 1997年 3月 22日 참조.

24) 게임구조의 형성에 관해서는 Vinod K. Aggarwal and Pierre Allan, "Preferences, Constraints and Games : Analysing Polish Debt Negotiations with International Banks," in Pierre Allan and Christian Schmidt, eds., *Game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rookfield : Edward Elgar, 1994), p. 17를 참조.

<그림 III-1> 중미간 경제영역의 상호의존

중미간 경제영역의 상호 의존		미 국	
		협력	배반
중 국	협력	4,4	1,3
	배반	3,1	2,2

한편, 경제 영역에 있어 중미 양국은 협력 뿐만 아니라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 영역에 있어 중미 양국의 마찰은 주로 중국의 경제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문제, 중국내에서 만연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연장 문제 및 WTO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중미 양국은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²⁵⁾

<그림 III-2>에서 나타나듯, 이러한 중미간 갈등관계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과 미국은 상대방에 대한 상호 협력전략을 구사한다면, 쌍방이 모두 차선(3,3)의 이득²⁶⁾을 획득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불확실성)'으로 인해서 (2,2)에서 균형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림 III-2> 중미간 경제 영역의 갈등

중미간 경제 영역의 갈등		미 국	
		협력	배반
중 국	협력	3,3	1,4
	배반	4,1	2,2

25) 중미 양국간 경제영역에서의 갈등 양상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안중석, 『미중 경제 협력의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년 ; Yangmin Wang, "The Politics of US-China Economic Relations," *Asian Survey*, May 1993.

26) 이 점은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이다. 파레토 최적이란 누군가가 희생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2,2)점을 제외한 (3,3), (4,1), (1,4)점들은 모두 파레토최적이 되는 것이다. 김재한, 『게임 이론과 남북한 관계』(서울 : 한울, 1995), p. 13.

그러나 중미 양국은 경제문제영역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마찰을 '상호보복(Tit-for-Tat)' 전략²⁷⁾을 기반으로 하고 쌍무적 회담과 국제무역조직 등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죄수의 딜레마 게임 구조에 있어 균형점으로 형성된 (2,2)로부터 파레토 최적점인 (3,3)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미 양국은 상호 경제발전의 주요한 파트너로서 얻는 '이득(benefit)'이 '비용(cost)'보다 크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부문을 완화하고 양국간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 군사/안보 영역

중미 양국은 군사/안보 영역에 있어서도 협력과 갈등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중미 양국은 탈냉전기 안정적인 지역안보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등 동아시아지역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 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역안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²⁸⁾

이와 같은 중미간 협력은 <그림Ⅲ-1>의 게임구조와 같은 '사슴사냥(Stag Hunt)'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국은 상호 협력적인 정책을 구사할 때,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 되는 안정된 주변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고의 이익(4,4)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반대로 상호 배반하게 된다면 차악(2,2)의 이익에

27) 액셀로드(Robert Axelrod)에 의하면, 상호보복 전략은 자신의 배반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보복(배반) 공포로 인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행위자간 협력을 도출할 수 있다. Robert Axelrod and Robert O.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in David A. Baldwin,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 104.

28) 이에 대한 논의는 錢其琛, 「中國永遠不會威脅侵略別國」, 『人民日報』, 1995年 5月 15日; William Perry, "The Sino-U.S. Relationship and Its Impact on World Peace,"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Vol. 5, No. 44, October 31, 1994; Joseph S. Nye, Jr.,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참조.

머무르기 때문에 협력하게 된다.

한편, 중미 양국은 핵확산, 무기수출문제에 있어서는 마찰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은 중미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²⁹⁾ 그러나 중미 양국은 이와 같은 마찰에도 불구하고, 지역안정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핵확산, 무기수출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서도 상대방과 협력이 필수적임을 공감하면서 각종 국제레짐 및 상호 군사교류 등을 통해 갈등부문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미 양국이 자국의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상호간의 의도를 정확히 인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중국위협론 등을 둘러싼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파레토 최적점(3,3)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³⁰⁾

3. 가치 영역 : 인권 문제

1972년 중미 관계 개선 후 인권문제는 중미관계에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였으나, 탈냉전기 양국간 전략적 관계가 소멸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1989년 6. 4 천안문 사건은 중미 양국관계에 있어 인권문제를 주요한 문제영역으로 변화시켰다.

천안문 사건 이후, 중미 양국은 인권문제에 있어 상호 합치되기 어려운 관점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마찰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천안문 사건의 주동자

29) 미국내 중국위협론자의 논의는 Arthur Waldron, "Deterring China," *Commentary*, October 1995, pp. 17-21 ; "How Not to Deal With China," *Commentary*, March 1997, pp. 44-49 ;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7, pp. 18-32 참조 ; 이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은 「中國發展有利于世界和平與進步--駁『中國威脅論』」, 『人民日報』, 1995年 12月 12日 ; 錢其琛, 『人民日報』, 1995年 7月 31日 ; 8月 2日字 참조.

30) 중미 양국은 실제로 1996년 11월 마닐라 정상회담과 12월 중국 국방부장 遲浩田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해 핵확산, 미사일 확산 문제 등 양국 간 군사/안보 영역의 제문제에 대한 대화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한겨레 신문』, 1996년 11월 26일.

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가혹한 대응에서부터 신강, 티벳 등 중국내 소수민족 문제, 그리고 가족계획 문제 및 죄수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대미수출 문제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인권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서구 민주주의의 전통적인 인권기준을 중국이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對중국 인권정책을 '내정간섭' 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부르조아 사고를 통해 중국공산정권을 전복하려는 패권주의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의 확고한 견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³¹⁾

이와 같이 인권문제를 둘러싼 중미간 갈등은 <그림 III-3>와 같이 전형적인 '교착(Deadlock)' 게임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I-3> 중미간 인권문제영역의 갈등

인권문제 영역		미 국	
		협 력	배 반
중 국	협 력	2,2	1,4
	배 반	4,1	3,3

교착게임에서는 두 행위자가 각각 상대방에 대해서 협력전략(CC)을 구사할 때보다 배반전략(DD)을 구사할 때 이득이 더욱 크기 때문에, 어떠한 협력가능성도 배제된다.³²⁾ 즉, 중미 양국은 가치영역에 있어서 협력보다 배반전략을

31) 이에 대한 논의는 鄧小平, 「堅持社會主義, 防止和平演變」, 『鄧小平文選』, 第三卷 (北京: 人民; 劉書林 等, 「當代中國人權狀況報告」(沈陽: 遼寧人民出版社, 1994), p. 2; 「美國務院 '人權報告' 歪曲事實顛倒是非」, 『人民日報』, 1995年 2月 27日; 「國務院新聞辦公室, 維護人權還是干涉內政?」, 『人民日報』, 1996年 3月 29日; 「美國『人權外交』可以體矣」, 『人民日報』, 1996年 4月 1日; *Korea Herald*, March 6, 1997 참조.

32) Vinod K. Aggarwal and Pierre Allan, "The Origin of Games: A Theory of the Formation of Ordinal Preferences and Games," In Michael D. Inriligator and Urs Luterbacher, eds., *Cooperative Models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search*. (Norwell: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p. 302.

구사할 때 각각 자국의 가치수호라는 최고의 국가이익을 획득하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권' 자체가 비물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인권을 둘러싼 갈등은 다른 영역, 즉, 군사/안보, 경제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가치 영역에 있어 중미 양국의 명분적인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대만문제 영역

1949년 중국공산정권 수립 이후, 대만문제는 중미관계에 있어 매우 민감한 부문이었으며, 탈냉전기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대만문제에 있어서 자국의 국가이익이 확장되면서³³⁾ 비록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기존의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대만과는 비공식 관계를 확대하는 이른바 '이중노선 정책(dual-track policy)'을 수행하면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하고 있다.³⁴⁾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대만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확장을 미국이 대만문제를 이용해서 '두 개의 중국(兩個中國)' 정책 혹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臺)' 정책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³⁵⁾

이와 같이 대만문제는 탈냉전기 중미관계에 양국이 상호 타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 즉, 중국과 미국이 비록 '하나의 중국'

33) 즉, ① 동아시아에 있어 대만의 군사/안보적 전략성, ② 미국의 이념과 부합되는 대만의 정치·경제 발전, ③ 양안관계의 발전을 통한 긴장완화 등을 통해 미국의 국가이익은 증대되었다. Martin L. Lasater, "Growing Interests in the New Taiwan," *Orbis*, Spring 1993, pp. 241-51.

34) Martin L. Lasater, 위의 글, p. 241; 周忠非, 「中美關係正常化與美國對臺政策的演變」, 『臺灣研究集刊』, 1995年 第3/4期, p. 121.

35) 1995년 6월 대만 총통 이등휘의 미국방문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人民日報』, 1995年 5月 24日 및 5月 26日.

원칙에는 합의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미국이 대만문제를 대 중국 견제카드, 혹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한 전략적 대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간 갈등구조는 <그림 III-3>의 인권문제와 마찬가지로 ‘교착(Deadlock)’ 게임의 형태를 나타낸다. 즉, 중미 양국은 대만문제에 대해 상호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최선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나타나는 중미 양국간 비협력은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무력시위’ 정도의 위협전략을 의미한다. 중미 양국은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경제영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면서도 각각 ‘국가주권의 확보’ 및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명분적인 국가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³⁶⁾

IV. 중미간 문제영역의 평가

1. 문제영역간 ‘대체성(fungibility)’의 감소

전통적인 현실주의 분석은 국가간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영역들에 있어 상호간 ‘대체가능성(fungibility)’을 인정한다. 이것은 곧 각 문제영역간 ‘연계’ 정책을 통해서 한 문제영역에서 지배적인 국가가 기타 문제영역에서도 상용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린턴 행정부 초기 미국이 대중 최혜국 대우 연장문제를 중국내 인권문제와 연계시키면서 가치 영역인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던 것은 이와 같은 이슈연계 전략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러나, 탈냉전기 국가간 관계에 있어 각 문제영역간 대체가능성의 감소로

36) 兩岸관계 역시 ‘경제적 수렴(economic convergence)’ 과 ‘정치적 분기(political divergence)’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Taeho Kim, “China’s Post-Cold War Security and Strategy Toward Northeast Asia : A Quest for a New Regional Identity,” to be edited by Tae-Hwan Kwak and Published b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IFES), Kyungnam University (forthcoming in 1997), pp. 22-24.

인해서 미국의 전략은 곧 국내외적인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조건없는 최혜국 대우 연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양국간 경제적 협력을 가치영역인 인권문제에 과도하게 연계함으로써 결국 당초 의도했던 중국내의 인권신장이란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협력가능한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양국간 긴장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실패를 제 2장에서 제시한 로즈노와 짐머만의 문제영역 도식에서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중미간 인권문제영역은 로즈노의 <그림 II-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행위자의 수단과 목표가 모두 비실제적인 ‘지위(status)’ 영역에 속하는데, 미국은 이것을 수단과 목표가 모두 실제적인 非人的 자원 영역에 연계시키면서 인권문제영역에 있어서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였으나, 비인적 자원 영역, 즉 중국의 최혜국 대우 문제에 관계되어 있는 국내외 각 이해집단들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결국 목적 달성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짐머만의 모델에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될 수 있다. 짐머만의 문제영역 <그림 II-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미간 인권문제영역은 국내외 각 관련 행위자들에 대해 정치적 효과가 대칭적인(symmetrical)이며, 정치적 자산(political goods)은 실제적인 I. 분배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연장문제는 그 파급효과가 국내적으로 비대칭적이며, 정치적 자산의 측면에서도 실제적인 II. 규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양 영역간 연계정책은 의도했던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던 것이다.

경제문제는 인권문제와는 달리 국내적으로 이득을 보는 승자와 손실을 보는 패자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그 정책의 내용과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³⁷⁾ 따라서, 미 정부가 자국내 이익단체들의 참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국내적으로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대칭적인 인권문제를 II. 규제 영역에 연계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국내의

37) 김태현·한태준, 「양면게임의 논리와 세계화시대의 국제협상전략」, 김태현, 유석진, 정진영 편저, 『외교와 정치 : 세계화 시대의 국제협상논리와 전략』(서울 : 오름, 1995), p. 85.

반발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 정부는 결국 인권과 경제문제의 연계를 탈피해야만 했던 것이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경제 영역과 군사/안보 영역의 상호 연계정책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중미 양국은 각각 자국의 안정된 경제 이익을 위해 군사/안보적 위협을 억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 영역의 연계정책은 중미 양국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경제 영역과 군사/안보 영역의 상호 연계가 경제 영역과 인권 영역의 연계보다 용이한 것은 짐머만의 <그림 II-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 영역이 비록 II. 규제 영역과 III. 상호작용/보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 각각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제 영역과 군사/안보 영역은 중미간 상호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문제영역이고, 이에 따라 양국 교섭담당자의 국내적 지지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만문제 영역은 각각 단일한 특성을 나타내는 他문제영역과는 상이하게 내부적으로 경제 영역, 군사/안보 영역 및 가치 영역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짐머만의 <그림 II-2>에서 본다면, 대만문제 영역은 I. 분배, II. 규제 및 III. 상호작용/보호 영역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만문제 영역에 있어 중미 양국은 대만해협의 안정(III. 상호작용/보호 영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부문(II. 규제 영역)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가주권 및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비실제적인 문제(I. 분배 영역)에 있어서는 마찰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협력과 갈등 영역의 분리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과 미국은 갈등과 협력 영역에 대한 분리 대응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중미 양국은 경제의존 및 이를 위해 선행조건이 되는 안정된 지역환경의 확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반면, 인권문제 및 대만문제 등에 있어서는 상호 타협할 수 없는 간격으로 말미암아 긴장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중미간 갈등과 협력의 분리가 가능한 이유는 상술한 바와 같이 각 문제영역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제 및 군사/안보 영역은 양국의 국가이익에 대해서 실질적인 반면, 인권 및 대만 문제영역은 상대적으로 명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중미간 대립은 양국의 국가이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농후한 반면, 인권 및 대만 문제에 있어서의 중미간 마찰은 양국간 실질적인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국의 명분적인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미 양국은 인권 문제에 있어, ‘年例舌戰(annual battle of words)’을 통해서 상대국내의 인권상황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을 지속하면서 명분적인 국가이익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³⁸⁾ 한편, 대만 문제에 있어서도 중미 양국은 지속적인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1996년 3월 대만해협위기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미 양국의 대응 역시 상당히 명분적인 대립이었던 것이다. 비록, 중국과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각각 미사일 발사훈련 및 항공모함 파견 등의 군사적 행동을 취하였으나,³⁹⁾ 실제적인 군사적 대립 상황은 극도로 자제함으로써 중미 양국은 자국의 명분적 이익과 실제적 이익을 모두 극대화하였다.⁴⁰⁾ 다시말해, 중미 양국은 대만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과시하되, ‘일정한 선’을 넘지 않음으로써 중국으로서는 국가주권의 확보, 미국으로서는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명분적인 이익과 상호 대만지역에 있어서의 경제 이익의 확보라는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던 것이다.⁴¹⁾

38)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미국을 ‘금전민주주의(moneybag democracy)’라고 비난하자,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세계최고의 인권 보호 국가인 미국이 독재국가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일축하는 등 양국간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형식적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China Attacks U.S. as ‘Moneybag’ Democracy, Poor on Human Rights”, AP, in *The Korea Herald*, March 6, 1997.

39) 중국은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 항모의 대만근해 진입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였다. 국무원 총리는 내정문제인 대만문제에 대해 미국이 항모를 파견, 개입하려는 것은 대만해협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 결과는 엄중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中央日報(臺灣)』, 1996年 3月 19日. 한 중국관리는 미국의 개입시 LA에 원폭을 투하할 것이란 극단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1996년 3월 19일.

40) 당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대만침공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다고 미국방부 대변인은 말하였다. 『中央日報(臺灣)』, 1996年 3月 17日.

V. 결론

탈냉전기 국가간 관계는 군사/안보 영역 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 가치 영역 등 제문제영역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불확실성도 또한 가중되고 있다. 군사/안보와 같은 단일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 국제체제 속에서 국가들의 행동범위는 매우 단순하고 협소할 수밖에 없었으나, 경제, 가치 등 다양한 영역이 중요한 문제영역으로 등장한 새로운 국제체제 속에서의 국가의 행동범위는 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국가들은 이러한 행동범위의 확장에 따라 문제영역간 연계정책 등을 통해서 자국이 상대국에 비해 소유하고 있는 유리한 부분을 이용, 상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각 문제영역이 내포하고 있는 상호 '불일치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하면서, 협력과 갈등 영역의 분리대응을 통한 자국의 명분적, 실리적 국가이익을 각각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 갈등의 공존'이라는 탈냉전기 국제정치질서의 특징은 중미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탈냉전기 중미관계에 있어 협력과 갈등의 공존은 양국간 각 문제영역의 상호대체성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탈냉전기 중미양국은 더 이상 각 문제영역의 연계정책을 통해 자국의 '상대적'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게 되자 각 문제영역에 대한 개별적인 분리 대응을 통해 각 영역별 '절대적' 국가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각 문제영역별 분리대응은 양국관계에 있어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표출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41) 이러한 중미관계의 특징은 '雷聲大雨点小'로 요약될 수 있다. Steven I. Levine, "Sino-American Relations: Testing the Limits of Discord," in Samuel S. Kim, ed., *China and the World* (Boulder: Westview Press, 1994), pp. 77-93; Harry Harding, *A Fragile Relationship*, p. 11.

<참고 문헌>

- 김응진. 『정치학 방법론 서설』. 서울 : 명지사, 1992.
- 김재한. 『게임 이론과 남북한 관계』. 서울 : 한울, 1995.
- 김태현 · 한태준. 「양면게임의 논리와 세계화시대의 국제협상전략」. 김태현 외 편저. 『외교와 정치 : 세계화 시대의 국제협상논리와 전략』. 서울 : 오름, 1995.
- 백악관.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 참여와 확대」.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1995 봄/여름.
- 안중석. 『미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 정진영 편저. 『외교와 정치 : 세계화 시대의 국제협상논리와 전략』. 서울 : 오름, 1995.
- 표학길 외. 『미국의 대외관계』. 서울 : 서울대 출판부, 1990.
- 하영선. 「탈근대 국제정치이론」. 이상우/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 나남, 1993.
- 『한겨레 신문』. 1996년 11월 26일.
- 『조선 일보』. 1996년 3월 19일.
- 鄧小平. 「堅持社會主義，防止和平演變」. 『鄧小平文選』. 第三卷. 北京 : 人民出版社, 1993.
- 潘銳. 「美國對華政策面臨調整」. 『國際展望』. 1996年 第 15期.
- 李福鍾. 「民族主義與美國對中共外交政策的重新檢討」. 『中國大陸研究』. 第 39卷 第 6期.
- 劉書林 等. 「當代中國人權狀況報告」. 沈陽 : 遼寧人民出版社, 1994.
- 錢其琛. 「中國永遠不會威脅侵略別國」. 『人民日報』. 1995年 5月 15日.
- 宋國誠. 「九十年代中共的國際關係」. 『中國大陸研究』. 第 36卷 第 12期.
- 王和興. 「試析冷戰后國際關係的特點」.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 2期.
- 薩本望. 「是“全面接觸”還是“全面參與”?」. 『瞭望』. 1995年 第 44期.

張也白. 「中美關係：曲曲折折在低谷中徘徊」. 張西明 外. 『1995-6年中國發展狀況與趨勢』. 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周忠非. 「中美關係正常化與美國對臺政策的演變」. 『臺灣研究集刊』. 1995年 第3/4期.

「美國務院‘人權報告’歪曲事實顛倒是非」. 『人民日報』. 1995年 2月 27日

「中國發展有利于世界和平與進步--駁‘中國威脅論」」. 『人民日報』. 1995年 12月12日

「國務院新聞辦公室，維護人權還是干涉內政?」. 『人民日報』. 1996年 3月 29日

「美國『人權外交』可以體矣」. 『人民日報』. 1996年 4月 1日.

國務院新聞辦公室. 「關於中美貿易平衡問題」. 『人民日報』. 1997年 3月 22日.

『人民日報』. 1992年 8月 17日.

『人民日報』. 1995年 7月 31日；5月 24日；5月 26日；8月 2日.

『中央日報(臺灣)』. 1996年 3月 17日；3月 19日.

中國統計年鑑. 各年號.

Aggarwal, Vinod K. and Pierre Allan. "The Origin of Games : A Theory of the Formation of Ordinal Preferences and Games." In Michael D. Intriligator and Urs Luterbacher, eds. *Cooperative Models in International Relations Research*. Norwell :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3.

_____. "Preferences, Constraints and Games : Analysing Polish Debt Negotiations with International Banks." Pierre Allan and Christian Schmidt, eds. *Game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rookfield : Edward Elgar, 1994.

Axelrod, Robert and Robert O.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 Strategies and Institution." In David A. Baldwin,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 Press, 1993.
- Bernstein, Richard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7.
- Baldwin, David A. "Neoliberalism, Neorealism, and World Politics." In David A. Baldwin,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 The Contemporary Debate*.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Breslin, Shaun. "The Foreign Policy Bureaucracy." in Gerald Segal, ed. *Chines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Reform*. London : Kegan Paul International. 1990.
- Dreyer, June Teufel. "The Military's Uncertain Politics." *Current History*. September 1996.
- Harding, Harry. *A Fragile Relationship :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ince 1972*.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Realism and Complex Interdependence." In Paul R. Viotti and Mark V. Kauppi, e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New York : Macmillan, 1987.
- Kim, Tae Ho. "China's Post-Cold War Security and Strategy Toward Northeast Asia : A Quest for a New Regional Identity." to be edited by Tae-Hwan Kwak and Published by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IFES). Kyungnam University (forthcoming in 1997).
- Lasater, Martin L. "Growing Interests in the New Taiwan." *Orbis*. Spring 1993.
- Levine, Steven I. "Sino-American Relations : Testing the Limits of Discord." In Samuel S. Kim, ed. *China and the World*. Boulder : Westview Press, 1994.
- Liberthal, Kenneth. "A New China Strategy."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1995.

- Nye, Joseph S. Jr. "The Case for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July/August 1995.
- Perry, William. "The Sino-U.S Relationship and Its Impact on World Peace."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Vol. 5, No. 44, October 31, 1994.
- Potter, William C. "Issue Area and Foreign Policy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mmer 1980.
- Rosenau, James.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New York : The Free Press, 1971.
- Shambaugh, Davi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A New Cold War?" *Current History*. September 1995.
- _____. "Containment or Engagement of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Fall 1996.
-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 Statistics Administration Bureau of the Census. *The National Data Book :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 U.S. GOP, 1996.
- Waldron, Arthur. "Detering China." *Commentary*. October 1995.
- _____. "How Not to Deal With China." *Commentary*. March 1997.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ctics* .Reading :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 Wang, Yangmin. "The Politics of US-China Economic Relations : MFN, Constructive Engagement, and the Trade Issue Proper." *Asian Survey*. May 1993.
- Yahuda, Michael B. "Sino-American Relations." In Gerald Segal, ed. *Chines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Reform*. London :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0.
- Yu, Bin. "The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 Problems and Prospect."

World Politics. January 1994.

Zimmerman, William. "Issue Area and Foreign-Policy Process : A Research Note in Search of a General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7, 1973.

Zoellick, Robert B. "China : What Engagement Should Mean." *The National Interest*. Winter 1996/7.

The Korea Herald. March 6, 1997.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9, 1995.